

금요일 1시간 일찍 퇴근... 임신 쏠 기간 1일 2시간씩 단축근무

여성고용 부문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대표 이완신)은 적극적인 여성인재 육성을 통해 사회 전반의 고용 불평등을 해소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롯데홈쇼핑의 여성 고용 비율은 지난 10월 기준 55%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평균 여성고용 비율(37.8%) 보다 월등히 높다. 전체 간부 직원(과장급 이상) 중 여성 비율도 약 37.2%로 상당히 높다.

롯데홈쇼핑 '와우홈(WOW. HOME)'은 여성들이 일하기 좋

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롯데홈쇼핑 여성 리더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여성 친화적인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 나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에비맘 케어 제도'를 도입하고 임신한 직원들이 출산까지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부의 근로시간 단축만 규정하고 있으나, 롯데홈쇼핑은 이 범위를 확대해 임신 전 기간에 대해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실시한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직원들을 위해 100만원의 시술비도 지원한다.

원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유연근무제', 매주 수요일은 30분, 금요일은 1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휴데이', 퇴근 시간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PC 오프제' 등을 운영 중이다.

롯데홈쇼핑 이완신 대표는 "여성 고객 비중이 높은 홈쇼핑업의 특성에 따라 조직 내에서 여성 인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객원기자



롯데홈쇼핑 제공



신세계아이앤씨 제공



에스피씨 지에프에스 제공



이랜드리테일 제공



한샘 제공

1월부터 선택적 근무시간제 도입

위라벨 모범기업 부문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아이앤씨(대표 김장욱)는 IT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제도를 도입해 '위라벨 모범기업'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우선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1월부터 '선택적 근무시간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했다. 긴급한 업무나 서버작업으로 인한 야간업무, VPN(Virtual Private Network)을 통한 원격근무 등 다양한 업무상황을 고려해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초과 근무한 시간을 저축해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와 'PC-OFF제'도 위라벨을 향상시킨 일 등공신이다.

스마트한 업무혁신을 위해 자체 개발한 사내 인트라넷 '블라섬'도 위라벨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인사료, 복리후생 등 업무용 챗봇을 도입해 빠르고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임직원들의 자기개발 교육 프로그램인 'SSG테크 아카데미'도 참여도가 매우 높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 관리, IT시큐리티 등 6개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으며 AA, TA, DBA 등 직무전문가 코스로 운영한다. 임신 기간 내 1시간 단축근무 및 최대 10개 월간의 출산 휴직, 자녀 돌봄 휴직 등 복지혜택도 돋보인다.

작년 말부터 561명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 부문



에스피씨 지에프에스는 구매대행 및 물류, 식자재 유통 등을 주 사업영역으로 하는 SPC그룹의 계열사다. 2018년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된 SPC GFS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고용환경 속에서 근무할 때 동기부여가 되고 생산성도 증가한다는 믿을 아래 지난해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단계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2017년 10월 물류부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500여명에 대한 전환을 시작으로 단계급식, 사무지원 부문 등 단계적으로 총 561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실시했다. 운송 관련 서비스업의 특성상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기존 근로자들의 피로 해소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고용도 확대했다.

주 52시간 제도의 특례업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주 52시간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신규로 고용한 인력은 300여명으로, 이를 통해 근로시간이 주당 약 10시간 단축됐다.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는 PC 사용을 강제로 금지시키는 'PC Off제' 도입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10명의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했다.

장애인고용률 3.5%까지 올리기로

취약계층 고용 부문



이랜드리테일(대표 김연배)은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 고용' 부문에서 정상 상의 자리에 올랐다.

이랜드리테일은 2001아울렛과 뉴코아아울렛, NC백화점, 동아백화점, 킴스클럽, 동아마트 등 전국에 52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유통회사다. 이랜드리테일에 소속된 장애인 직원은 현재 전국 16개 점포에 총 117명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2.9%)을 초과했고, 지속적인 채용을 통해 3.5%까지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장애인 직원과 그 가족 100여명을 한강 유람선인 이랜드크루즈로 초청해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또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입사한 장애인 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처럼 차별 없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애쓴 결과, 지난 4월 12일 개최된 '2018 장애인고용 촉진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 9월에는 장애인 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인 직원 비중을 늘리기 위한 직무개발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워크숍에는 김연배 이랜드리테일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과 전국 지점장 50여명이 참가해 사업장 내 중증장애인을 위한 새 직무를 개발하는 미션을 수행했다.

자녀 수 제한 없이 보육비 지원

위라벨 모범기업 부문



종합 홈테일러 전문기업 한샘(대표 최양하, 조창걸)은 '위라벨 모범기업' 부문에 선정됐다.

여성 임직원 비율이 높은 한샘은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직원이 임신할 경우 30만원 상당의 임신축하 선물과 산전 용품구입을 위한 복지 포인트 지급, 임신 전 기간 동안 임금 차감 없이 6시간 단축 근무, 입부 PC OFF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 시에는 100만원 출산 축하금을 지급받으며, 육아휴직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돼 눈길을 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단축 근로(4-6시간)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자녀 수에 관계 없이 자녀 보육비도 지급한다.

2012년에 개원한 '한샘 어린이집'은 현재 사육으로 이전하면서 확장해 약 677㎡(약 200평) 규모로 임직원 자녀 70명이 이용 중이다. 교사도 한샘 직원인 직원으로, 임직원의 선택적 근무시간제를 감안해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운영된다.

하루 6시간 집중 근로시간 외에는 업무시간을 정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를 시행 중이며, 전국 320여개 상담센터와 연계한 사내 심리 상담실 운영, '좋은 일터 만들기 위원회' 운영도 한샘이 자랑하는 제도들이다.



한국전력공사 제공



국민연금공단 제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공



한국국제협력단 제공

공공기관 역대 최대 3538명 채용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부문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에너지벨리' 조성을 통해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공공기관 역대 최대 규모인 3538명을 신규 채용한 한전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한전은 본사가 있는 전남 나주와 광주광역시에 에너지 신산업 기반 혁신성장의 메카인 에너지벨리를 조성해 8600여명의 대규모 민간 고용창출 효과도 달성했다. 김종갑 사장이 직접 주도하는 'KEPCO 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그동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왔다.

2014년 12월 본사를 전라남도 나주로 옮긴 한전은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특화된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인 에너지벨리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35개 회사와 에너지벨리 투자 협약을 맺었다. 누적 투자 금액은 약 1조4000억원이며, 이를 통해 8617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었다.

한전은 또 에너지 스타트업 기업 발굴·육성부터 해외 수출까지 생애 전 주기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는 등 에너지 생태계 발전에 힘쓰고 있다. 여기에 선정된 기업은 입주 사무실 제공, 경영컨설팅, 글로벌마케팅 등을 지원받는다.

비정규직 1231명 직접고용으로 전환

청년고용 부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청년고용'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노사합의를 통해 전 직원이 초과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했고, 올해 신규직원 500명을 채용했다. 이는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동시에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을 추진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1231명 전원을 자회사나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한 것도 눈길을 끈다.

공단은 이같은 노력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2017년 공공기관 일자리 콘테스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상, '2017년 일자리창출·지원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민간부문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유 사업인 '노후준비교육서비스'의 전문 강사 자격을 민간에 개방해 올해 63명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했다.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위라벨 문화를 선도하는 것도 돋보인다. 시차출퇴근제와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고 매주 2회 정시퇴근의 날, 조기퇴근제를 도입하는 등 가족 친화적 위라벨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공단 내 어린이집 운영 등 여성근로자 육아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 중이다.

매년 바이오 분야 채용박람회 개최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부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하 진흥원)은 전국 343개 공공기관 중 일지리의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내어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진흥원은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산업 좋은 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운영해 보건산업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고 정기적으로 실적 점검에 나서고 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연구개발 및 창업 육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일자리를 연계시키고, 보건산업 분야 고용 창출,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진흥원은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와 '서울바이오허브'를 운영해 이 분야 창업을 지원하며, 의료 해외진출 인턴십 지원사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중심의 다양한 원 내외 창업육성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올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바이오산업에 특화된 채용박람회를 여는 등 바이오코리아(Bio Korea)와 연계한 채용 박람회도 매년 개최한다.

진흥원 일자리창출팀 최영민 팀장은 "보건산업 분야 혁신 창업과 사회적 가치 구현은 모두 열린 혁신을 통해 가능하다. 다양한 패널리스트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중심 정책 수립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력 사다리' 통해 NGO 진출 도와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부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사장 이미경)은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KOICA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와 전문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글로벌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귀국 인재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경력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일자리 로드맵(2018~2021)' 전략을 수립하고 봉사단 파견 사업을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월드프렌즈코리아(WFK) 본부를 '글로벌인재 양성사업부'로 변경하고 일자리지원 전담팀도 신설했다.

KOICA는 인재 발굴·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경력 사다리다. KOICA 활동 경험을 토대로 국제기구나 NGO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를 통해 올해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48명을 신규 파견하고, 다자협력전문가(KMCO)는 22명에서 40명으로 확대 파견했다. 지난해 KOICA 귀국 인재 중 전체 취업자 수는 503명이다. 현재까지 양성된 글로벌 인재들은 NGO, 민간, 국제기구 등 각계각층에서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제개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